Vol.7 수영, 오늘을 달리다

도도 수영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수영**

여는 글

지난 3년간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해온
도도수영 도시재생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2022년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도수영은 주민의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희망찬 내일이 기대되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공식적인 도도수영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민은 여전히 이 소중한 곳에서 도시재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 주인이 되어야 하고 될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도도수영 주민 공동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건강한 주민 참여조직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한 그러리라 믿습니다.

좌수영성의 자랑스러운 25의용단!
도도히 흐르는 수영 강물처럼, 도도수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수영동의 도시재생
의용단으로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이석환 (경성대학교 교수)

도도 수영

Vol.7
수영, 오늘을 달리다

Contents

01 유사사례지 견학_ 영도 AREA 6 | 04

- 영도 도시재생의 현장 'AREA6'를 가다
- 6개의 공간이 만들어내는 어울림

02 경상좌수영성지 | 08

- 경상좌수영성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8호)

03 수영의 무형문화재 | 10

- 수영 지신밟기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
- '수영 산신당제'를 지내며 기도하다

04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 | 14

- 수영의 과거를 거닐다

05 도도수영 해설사 상시프로그램 | 16

- '도도수영 한바퀴' 도시재생 투어
- 도도수영 해설사 2기 전문가 과정

06 도도수영 NEWS | 20

- 2022년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
- 2022년 수영구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07 수영 날아오르다 | 22

-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

영도 도시재생의 현장 'AREA6'를 가다

문성현

영도는 1887년 조선소가 들어서면서부터 조선업을 중심으로 급속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초반 국제적인 조선업의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차 도시 경제가 무너지고 기반 시설의 낙후와 인구감소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이에 이전의 도시로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자 도시재생을 선택하였고 그 중심에는 영도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식품회사로 성장한 '삼진어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삼진어묵'은 영도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삼진이음'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대통전수방'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장인들을 보존하고 그들의 기술을 5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젊은 세대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의 순기능의 성과를 이루어냄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AREA 6

이러한 지역 활성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삼진이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2021년 2월 '로컬을 밝히는 아티장 골목' 이라는 콘셉트의 복합문화공간 '아레아6'를 조성하여 본격적인 로컬 문화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탐방을 통해 '아레아6'를 조성하는 과정과 '아레아6'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 아레아6'는 장인을 뜻하는 아티장(Artisan)의 'A', 재생을 의미하는 'RE', 골목(Avenue)의 'A'를 결합해서 탄생한 브랜드인 'AREA'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삼진어묵' 대표가 매입한 기존 건물 6채의 '6'과 인접한 봉래시장 상인들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을 뜻하는 '6'을 합쳐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자금을 저리로 활용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도시재생 공간에 대한 주민 자산화의 접근 방식이라 할 것이다.

영도 도시재생의 중심 '아레아6'를 돌아보고 공간 조성의 목적과 운영의 방식을 설명을 듣고 느낀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형성과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통한 거점공간들의 주민 자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그러한 접근을 위해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아레아6'가 한 개인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낸 도시재생의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우리 서로가 힘을 합쳐 주민 자산화가 가능한 도시재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보았다.

6개의 공간이 만들어내는 어울림

김연희

지난 2월 22일 9시 도도수영 어울림센터에서 올해 출범할 <도도수영 마을관리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첫 번째 유사사례지인 AREA6로 출발하며 모처럼 설레었다. 부산항 대교를 지나 영도에 도착하자 바다의 짠 내음과 조선소들의 쇠 냄새가 눈으로도 보이는 듯하다. 30분 만에 AREA6 주차장에 도착했다. 건물과 간판이 낯설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 하루에도 여러번 울리던 SNS 맞팔 알림 때문일까?

안으로 들어서니 밖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내부는 더 큰 규모와 실속 있는 장소로 꾸며져 있었다. 1층에는 송월타월, 부산 주당, 아티스트들의 포스터와 굿즈를 판매하는 COLUMNIST 무인 상점, 무인 책방, 건어물 숍 인어아지매, 기타 소품 숍 등 특색있는 지역로컬브랜드들이 입주해있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투어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며, 판매까지 이루어낸다. 그리고 특이한 자판기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바로 필름로그(Flimlog)라는 필름카메라 자판기였는데,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AREA6에 최초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필름로그 자판기 200% 즐기기 등 다양한 설명과 필름 카메라 투입구까지~! 추억이 물씬 풍기는 아이템이다. 이건 수영에 데려가고 싶다.

2층에는 다목적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있었다. 앞으로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될지 기대되는 곳이다. 이런 공간은 우리에게도 꼭 확보되어야 할 공간이라 생각된다. 'WSL'이라는 카페도 있었는데, 이곳은 커피와 가죽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다양한 색깔의 가죽 원단을 비롯해 가죽공예품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 자체가 카페 공간 인테리어가 되었다. 전시된 물품들을 감상하며 우리의 '어울가게'에 전시할 다양한 상품들의 아이디어가 떠올려졌다.

3층에는 루프탑과 세미나룸(Seminar room)이 있었다. 오른쪽 한쪽 벽면에 치핑(Chipping)해 만든 영도 지도가 아주 특이했다. AREA6 투어 이후 커피 대접까지 받고 1층으로 내려와 중정에서 하늘을 보니 이곳이 주변 건물들과 아주 잘 어우러져 있었다. 삼진어묵으로 가서 어묵 만드는 과정도 보고, 바로 연결되는 봉래시장의 두붓집과 국숫집도 살펴보았다.

AREA6 주변 거리는 다른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 낡은 건물과 신축 건물들이 어우러져 골목의 다양함을 생성한다. 어느덧 AREA6는 매력적인 골목 문화를 생산하며 이를 선도하고 있다. 고유의 정체성과 진정이 보인다. 왜 건물을 지으면서 더 높게, 더 넓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싹 사라진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지만 우리 도도수영과 많이 닮아있다. 우리도 어떻게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하며 매력적인 골목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경상좌수영성지 慶尙左水營城址

부 산 광 역 시　기 념 물　제 8 호

전미경

좌수영성은 경상좌도 수군의 총 지휘자인 경상좌수사가 머물던 진영(鎭營)으로 동남해안을 방비했던 곳이다. 경상좌수영성은 원래 동래 부산포에 있었으나 1406년(태종 6)에 울산의 개운포(開雲浦)로 옮겼다가 1592년 임진왜란 직전에 동래남촌(수영동)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좌수영에는 무관 정3품의 수군절도사의 주재하에는 원래 1개의 검사영(거진), 즉 부산포진과 10개의 만호영이 있었다. 다대포 (동래)·해운포(동래)·서평포(동래)·두모포(울산)·개운포(울산)·서생포(울산)·염포(울산)·포이포 (영해)·감포(경주)·마포(영포)·축산포(영해)·칠포(흥해)가 만호영이었다.

좌수영성은 석성으로, 둘레는 약 2.147m, 높이는 4m이며, 우물 3개, 성문 4개, 수구 4개, 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 바깥에 쌓는 옹성(3곳)과 치성(7곳)이 있었다. 동문을 영일문, 서문을 호소문, 남문을 주작문, 북문은 공진문이라 하였는데 이들 성문에는 각기 문루가 있었고 1895년(고종 32) 7월, 군제개혁으로 수영이 폐지될 때까지 약 300년간 사용되었다.

<경상좌수영관아배치도>

<현재의 모습>
출처:수영구청

수영 지신밟기

부산광역시 무형 문화재 제22호

최광훈

지신밟기는 마을 단위로 음력 섣달 중에 악기, 의상, 도구를 준비하고 연습을 하여 정초에 땅에 묻혀 있는 잡귀를 발로 밟아 위로하고 진정시켜 마을의 안녕과 풍작 및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 풍속으로 경상도에서는 귀신을 불러내어 진압한다고 하여 매구(埋鬼) 굿이라고도 불렀다.

우리 고장의 지신밟기는 음력 정월초 사나흘 경부터 열흘 가량 '야류계'가 주동이 되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걸립 (집집마다 다니며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들임) 형식으로 행하여졌는데 마을 주민들의 안과태평(安過太平)을 빌어 주고, 걸립을 하여 정월대보름에 거행하는 수영야류의 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지신밟기와는 다른 점이다.

수영 지신밟기의 시작은 수영 야류의 형성 시기와 경비 조달을 위해 놀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25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수영 지신밟기는 단순한 걸립(乞粒)의 목적뿐만 아니라 수영 야류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행하여졌지만 정월 대보름날 밤에 벌이는 야류가 없어진 지금은 독립적으로 행하여진다.

수영 지신밟기의 연희는 당산 풀이와 우물 풀이, 대문(인사) 풀이, 생원 댁 풀이, 마당 밟기와 기(旗) 소각제의 네 마당으로 나누어진다.

지신밟기는 1930년대까지 우리 고장의 연중행사로 전래되었고 일제의 탄압으로 한때 중단되었으나, 8·15광복 후 복원되어 2014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사단법인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를 중심으로 보존·전승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마당은 당산 풀이와 우물 풀이로 마을의 신들에게 지신밟기를 한다고 고한다. 먼저 산신당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 마을의 동편에 있는 최영 장군 사당(무민사)과 먼물샘에 제사를 올리는 우물 풀이를 마쳐야 본격적으로 각 가정의 지신밟기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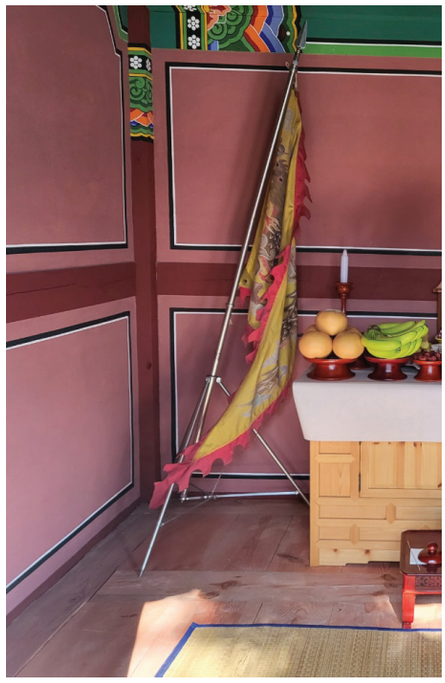
둘째 마당은 상쇠가 놀이패를 이끌고 미리 알려 놓은 집(생원 댁)으로 가서 하는 대문풀이이다. 상쇠는 문전에 기를 세우고 지신을 밟으러 왔다고 주인에게 아뢴 다음 마당으로 들어가 벽사진경(辟邪進慶: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함)을 빌어 주는 대문풀이에 이어 한마당 춤 놀이를 한다.

셋째 마당은 생원 댁 풀이이다. 성주(집터를 관장하는 신) 풀이 – 조왕(부엌 신) 풀이 – 장독(장독간 신) 풀이 – 고방(곳간 신) 풀이 – 삽짝(대문 신) 풀이의 순서로 지신을 밟으며 풀이를 한다. 놀이패는 "잡귀 잡신은 소멸하고 만복은 이리로!"라고 외치며 마지막 삽짝 풀이를 끝낸다. 집안의 지신밟기가 마치면 주인은 마당에다 주안상을 차리고 참가한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사령은 지신밟기의 대가로 받은 돈이나 곡식을 수영야류의 경비에 쓰고자 자루에 보관한다.

넷째 마당은 기소각제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대가로 또다시 한 마당 춤판을 벌인 후에 마지막으로 문전에 세워 두었던 기를 소각한다. 올해에 썼던 기는 다시 쓰지 않고 불태워 액을 날려 보냄으로써 이곳 수영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

수영사적공원의 『수영산신당과 독신묘』 제를 지내며 기도하다

장은서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 정월 대보름 바람 부는 겨울날, 한 해의 안녕과 복을 비는 제사가 있어서 참여하기로 하였다.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를 알게 되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수영사적공원에는 수영 산신당과 독신묘가 나란히 있다. 수영 산신당은 마을을 지키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는 신들을 모시는 신당이다. 지금도 수시로 와서 입구에서 술을 놓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독신묘에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다. 처음에는 사적공원 내의 천연기념물 곰솔나무 옆에 있었던 사당을 고증을 통해 2018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한다.

전쟁에 나갈 때 부대 제일 앞에 서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깃발로 임금님을 대신한다고 한다. 깃발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 그려져 있으며 삼각형 모양의 깃발이다. 수영 산신당보다 독신묘의 사당이 조금 더 큰데, 그것은 당보다 묘를 더 높여 부르는 의미와 같다고 한다. 수영동 일대에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어 군대의 깃발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지 짐작해 본다.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당제를 모신다고 한다. 마을에 살면서 무속신앙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도도수영 발굴단' 활동을 하면서 전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제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기회가 주어져 얼른 참여하기로 하였다. 2022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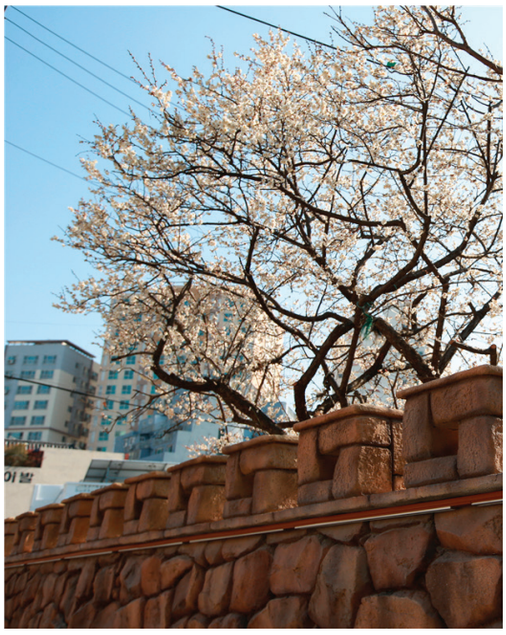
당제는 수영 향우회가 주관하여 진행하며 향우회 회원인 이성규 님과 도상도 님이 제관이 되어 제사를 지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제를 지내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제를 지내는 전날부터 사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입구에는 새끼줄에 솔잎을 끼운 금줄을 치며 액운을 막았다. 당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음식을 차릴 때 손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며 정성으로 올렸다. 향을 피우고 제관 두 분이 술을 올리며 절을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하는 제사와 비슷하였다. 수영의 안녕을 기리는 기도문도 읽으며,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우예둥둥 안에서 존경받고 밖에서 사랑받게 해 주이소"라며 건강과 복을 기원하였다. 마치 엄마가 '우리아이 사랑 받게 해주이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당제를 끝내고 지신목인 푸조나무와 군신목인 곰솔나무에게 술을 올리고 한 해도 무탈하길 기도하러 가는 동안 차려진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복을 축원하면서 제를 마무리하였다.

사라져 가는 생활 문화를 알리기 위해 방송국에서도 전 과정을 촬영하여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선거가 다가와서인지 당을 대표하는 사람, 당제 관계자, 문화 연구를 위한 연구원, 주민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목적은 다르지만 한 해도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아 보였다. 모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요즘 마을에서 이어오는 행사라고 하여도 쉽게 행해질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 올해는 어렵고 조촐하게 제를 지냈지만 다가오는 해에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여 서로의 행복과 건강을 비는 편안한 제사를 지낼 수 있기를 한 번 더 기도한다.

수영의 과거를 거닐다

조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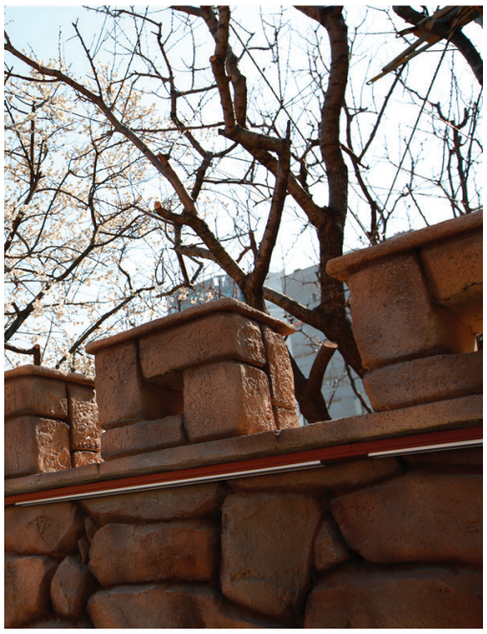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350여년 전, 현재 수영구의 자리에는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에 수영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문화자원인 좌수영성 주변 경관을 활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 조성은 크게 성곽 설치, 25의용단 토우 설치, 좌수영성을 이미지화한 도로 포장 등의 공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풍경을 현재의 수영에 덧입히는 것은 좌수영성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는 작업이다. 수영사적공원에서 도도수영 어울림센터로 이어 지는 거리에 조성된 성곽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치 과거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작용했던 좌수영성의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사적공원 내에 위치한 25의용단(義勇壇) 사당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임진왜란 당시 좌 수사가 도망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결의를 다졌다. “싸우면 이겨서 살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망하리로다.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있거늘 어찌 삶을 구하여 산야로 달아날 것인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리라.” 라고 선서바위에 피로 맹세한 후 왜적을 상대로 바다와 육지에서 유격전을 펼친 것이다.

도망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 싸웠던 25의용단의 모습은 토우로 재현되어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에 설치될 예정이다.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는 수영사적공원의 풍경 과도 연결된다. 한낮의 공원에서는 가볍게 운동하러 나온 어르신들 혹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이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 옆으로는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목(堂山木) 푸조나무와 곰솔나무가 있고, 우리 땅을 위해 장렬히 싸웠던 25의용단을 기리는 사당과 나라를 지키러 떠나는 군부대의 출정 깃발이 모셔진 독신묘(纛神廟), 수영산신당(水營山神堂)도 있다. 이렇듯 우리 마을 곳곳에서 이미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역사문화유적들은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가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도시재생이란 쇠퇴한 도시를 지역자원 활용, 지역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옛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오롯이 기억하고, 그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주는 것이다. 대문을 열고 나서면 우리네 조상들의 흔적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대문을 열고 나서면 우리네 조상들의 흔적과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를 통해 과거와 연결된 우리 동네의 모습은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 자원과도 연계되어 지역 상권 경제까지도 활성화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이리저리 바쁘게만 지나다녔던 우리 동네. 오늘은 용맹했던 과거의 모습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보는 것이 어떨까?

"도도수영 한바퀴"

도시재생 투어

2022년 2월 ~ 상시 운영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가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무대로
자연, 역사, 문화 등 도시재생자원 및 시설을 안내하는 도시재생 현장 투어!

도도수영 해설사가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안내하는 프로그램 '도도수영한바퀴'가 지난 2월부터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도수영 어울림센터, 수영사적공원, 도도수영 8A 등이 포함된 4개의 코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화접수와 QR코드 접속을 통한 온라인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1회 90분 소요

- 평일 2회 : 10:00~11:30 / 14:00~15:30
- 주말 3회 : 10:00~11:30 / 13:00~14:30 / 15:00~1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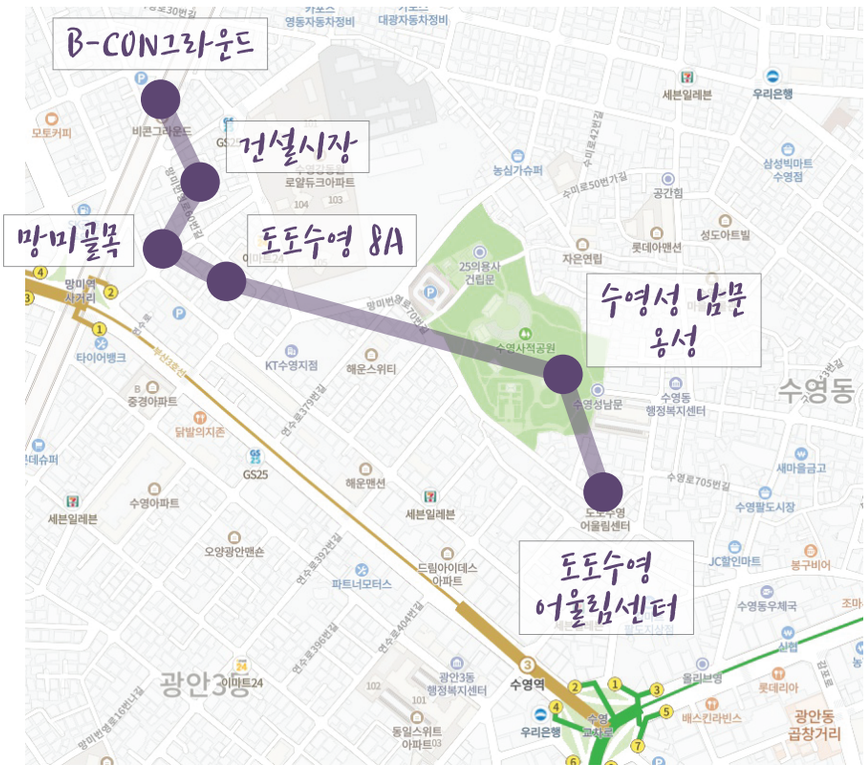
접수방법

-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051) 610-4093
- 온라인 구글 신청서
  https://forms.gle/kr9Gea3J9Qzm4VrX9

도도수영 한바퀴

A 쉬엄쉬엄 걷다보면 코스 : 쉬엄쉬엄 걷다보면 젊음과 어우러져 상생하는 길!

도도수영 어울림센터 → 수영성 남문 옹성 → 망미골목 → 도도수영 8A → 건설시장 → B-CON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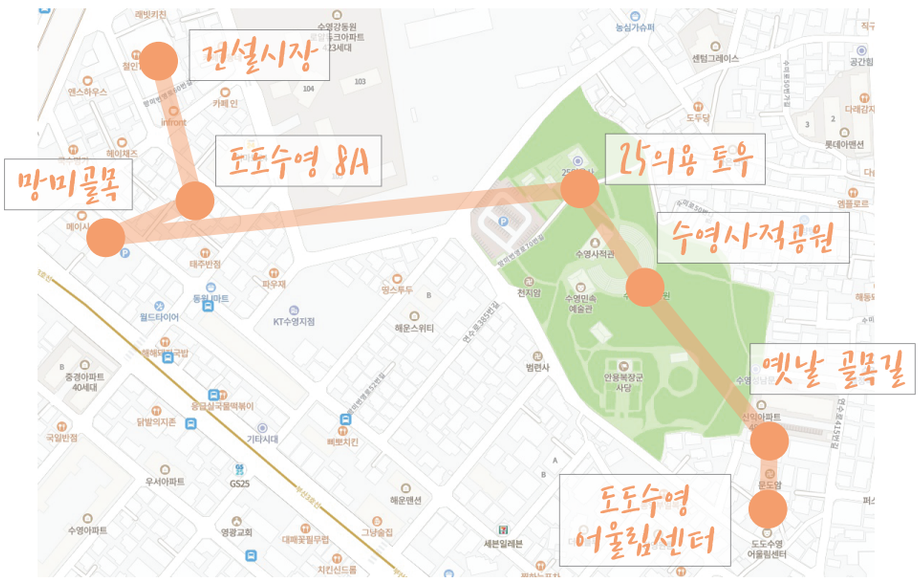


B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코스 : 도란도란 수영성 성내길!

도도수영 어울림센터 → 옛날 골목길 → 팔도시장 → 역사를잇는 느린골목길 → 생활형SOC → 수영성 마을박물관

C 수영의 어제를 돌아보고 코스 : 역사 속의 수영을 함께 걷는 길!

도도수영 어울림센터 → 옛날 골목길 → 수영사적공원 → 25의용 토우 → 망미골목 → 도도수영 8A → 건설시장



D 도도에서 문화공장까지 코스 : 더불어 상생하여 문화를 생산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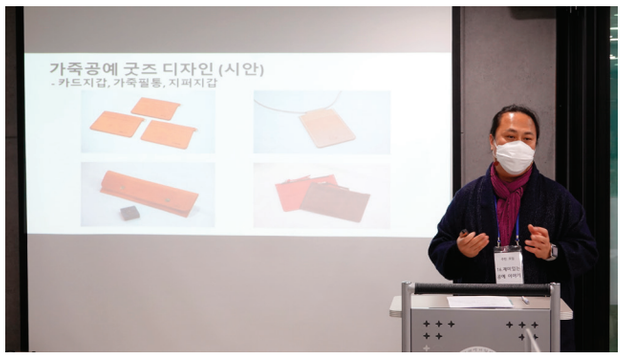
도도수영 8A → B-CON그라운드 → 고려제강 기념관 → F1963

도도수영 해설사 2기 전문가 과정

작년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수료한 11명의 해설사 2기 수료생들이 2022년 2월 11일을 시작으로 전문가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도도수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고, 지역 자산과 도시재생의 이론학습 및 현장실습 병행을 통해 전문가의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다.

도도수영 해설사 전문가 과정의 이론과정에는 경성대 도시공학과 이석환 교수님, 전 수영야류보존회 회장 김성율 명인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이론과정 이후에는 도시재생 투어 상시 프로그램 '도도수영 한 바퀴' 혹은 B-con 그라운드와의 협업을 통한 '도도수영 안내소'에 참여하는 실습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도도수영 NEWS



2022년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좌수영성 상생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을 모집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가 발굴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2월 11일(금) 사업설명회를 거쳐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며 3월 말 지원 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컨설팅과 보조금 사용 교육이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수영구 망미번영로 70번길 137) 에서 실시되고 사업은 수영구 일원 및 도도수영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2022년 수영구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2022년 수영구 도시재생대학'의 수강생을 2월 25일 (금) ~ 3월 25일 (금)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3월 29일 (화)부터 5월 31일 (화)까지 매주 화요일 10~12시에 이루어지며, 온라인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실습이 있는 경우에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의 커리큘럼은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 동네의 커뮤니티 만들기, 우리의 마당과 마을 골목을 예쁘게 가꾸고 기록할 수 있는 홈가드닝 및 아카이빙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

수영구 수영성로 26번길 일원에 수영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 벽화길이 조성되었다. 이는 낙후된 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을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권 안에 있는 골목을 수영의 특색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 길은 수영구 주민들이 꾸린 '느린 골목길 주민 관리단'이 직접 관리할 것이며, 주민 관리단은 도도수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영구민들의 참여를 받아 꾸려질 예정이다.

발	행	처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편	집	인	전미경, 김연희, 최광훈, 윤라영, 장은서, 강미라, 조은혜
디	자	인	정유은
발	행	일	2022년 3월 15일
인		쇄	청송 인쇄사
주		소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70번길 137
전		화	051-610-4093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Consultative group for Suyeong Urban regeneration

수영구 Suyeong-Gu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국토교통부

본소식지는 수영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